

2018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경상북도 포항시
- 제일지역아동센터



2018. 7

처음 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첫 날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낯을 많이 가리기도 하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다소 기운이 빠졌다. 하지만 지난 겨울에 이화봉사단을 다녀왔던 경험을 떠올리며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실제로 2일차 미니운동회와 3일차 영화관람을 하며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나를 선생님으로서 믿고 좋아해주었다. 가끔 정말 사소한 일에 아이들이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말 순수하고 귀여운 모습이었다. 사실 대학생인 우리가 봉사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거창하지 않다. 사전에 준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활동을 통해 우리는 인내심과 배려심을 기르고 세상을 더 넓게 보는 시각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봉사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센터장님과 센터에 근무하시는 여러 선생님께서 우리가 4박 5일 동안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이것저것 신경써 주셨는데 덕분에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족한 나를 팀장으로 믿고 따라준 우리 봉사 팀원들에게도 고맙다. 우리 봉사단의 팀워크는 최고였고 이화봉사단으로 활동했던 포항에서의 4박 5일은 나에게 잊지 못할 여름날의 추억이 될 것 같다.

김*연

센터에 있는 아이들의 연령대는 사촌동생 두 명 정도 접해본 적이 있고 살면서 한 번도 센터 아이들의 또래와 함께 시간을 보내본 경험이 없었다. 요즘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첫 날은 아이들의 모습에 당황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에게 어떤 말로 다가가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런 내 모습이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했다. 둘째 날이 되고 전 날의 피로가 쌓이고 좀 더 투명스러워진 아이들의 모습에 나 역시도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없었다. 그날 저녁 봉사단원들과 회식을 하며 모두가 비슷한 기분을 느낀 걸 알게 되었고 다음 날부터는 우리 모두 열심히 하자라는 의욕을 불태웠다. 3일째부터는 내가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칭찬해주고 먼저 대화를 계속 이끌어나가자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나에게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도 하지 않던 학생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기도 했다. 4일째에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했고 다음 날 센터장님께 소감을 말하는데 눈물이 핑 돌기도 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지만 오히려 내가 얻어가는 감정들과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 아이들에게 너무 고맙다. 봉사를 시작할 때는 '나에게 교육봉사가 맞지 않나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봉사라는 의미를 깨닫게 해준 아이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 또 4박 5일 동안 함께 모든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챙겨주고, 힘들어 할 때 옆에 와서 따뜻한 한마디나 미소를 전해준 우리 봉사단원들이 가장 고맙다. 수빈 언니 말처럼 우리 봉사단은 이보다 완벽한 팀워크는 없다고 자부할 수 있고, 이번 방학에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김*운

아이들과 만나기 전,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4박 5일 동안 이어지는 봉사활동은 처음이라 조금은 두려웠다. 그런 마음과 함께 아이들과 첫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생각보다 엄청나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지는 않아서 조금은 당황했었다. 그러다보니 첫 날의 프로그램들은 의무적인 태도로 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지 않는 아이에게 격려를 하며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했다. 그래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임하는 아이를 보며 그간의 내 행동들이 부끄러웠으며 나의 태도로 아이들을 조금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생겼으며 그 힘으로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솔직히 봉사 시작 전에는 4박 5일 동안 내가 아이들에게 베풀고 가는 일방적인 나눔만을 생각했었다. 봉사 중반이 넘어가자 아이들이 나에게 맘을 열어 먼저 말을 걸고 안아주는 모습을 보며 봉사라는 것이 절대 나만의 일방적인 나눔은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대학에 와서 별로 경험하지 못한 팀활동을 할 수 있었다. 서로 긍정적인 기운을 주고 받는 모습들을 보며 팀워크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으며 봉사단원들의 아이들을 향한 태도들을 보며 내가 더 많이 배울 수 있어 좋았다. 봉사활동을 끝마치며 제일지역아동센터에서 보낸 4박 5일간의 시간들은 무의미하게 보낼 수 있는 2달 간의 방학을 의미있게 만들어준 좋은 경험이라 생각된다.

내가 그동안 참여했던 봉사활동들은 중, 고등학생들과 함께하는 학습 멘토링 봉사 활동이나 독거노인분들 생활편의를 지원하는 활동이었다. 그래서 캠프에 오기 전 준비과정부터 캠프 첫날까지 초등학생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지, 아이들이 우리 팀이 준비한 프로그램을 지루해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팀원들끼리도, 나 스스로도 많은 고민을 했었다. 우리팀은 레크리에이션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그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연령대도 낮아 그저 같이 재미있게 놀아주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첫날에는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보이는 솔직한 반응에 적잖이 당황했었다. 쉽게 지루해하던 아이들의 반응도 반응이었지만 막상 열심히 준비해온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단어의 의미를 설명할 때에도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었다. 하지만 첫째날을 마무리하는 팀 회의에서 둘째날 프로그램부터는 조금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담을 덜고 즐기면서 봉사에 참여하자고 서로를 다독였고, 각자 번갈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주도하여 진행할때에도 우리팀원들은 서로를 격려해주었다. 센터를 총괄하시는 센터장님과 사회봉사 선생님들도 우리 봉사단원들에게 힘든점은 없냐며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셨고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많은 도움과 조언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다. 짧다면 짧았던 4박 5일의 캠프를 돌아보면, 작지만 내가 가진 것을 베풀기 위해 참여했던 봉사활동이었지만 오히려 아이들과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로부터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벅찬 따뜻한 마음을 선물 받았다. 헤어질 때 아이들이 '선생님 우리를 잊지마세요!'하는 낭랑한 목소리를 들으며 무사히 캠프를 잘 마쳤다는 뿌듯함과 몽클한 마음이 교차했다. 좋은 팀원들과 무한한 밝은 에너지를 가진 아이들, 그리고 캠프가 잘 진행되기 위해 배려해주신 센터관계자분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이화 사회봉사팀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김*수

이화봉사단을 지원할 때 지원서 지원동기란에 ‘봉사는 단순히 베푸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만나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만나 다양한 시각을 나누는 것이 봉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제일지역아동센터에서 저는 이 의미를 몸으로 깨닫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제일지역아동센터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 그들과 나눈 시간들이 저에게는 봉사의 의미였습니다. 제일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들, 그리고 센터 속 다른 선생님들과 센터장님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평소에 볼 수 없던 시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시각, 센터 선생님들의 사랑이 담긴 시각을 통해 저는 오히려 그들에게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좋아해 주고 따르던 아이들을 보며 저는 제 가치를 찾을 수 있었고 힘들지도 않은데 걱정해주고 신경 써주시던 센터 선생님들을 보며 봉사의 보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저도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봉사는 일방향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봉사를 어렵게만 생각해왔던 저는 이번 봉사를 통해 봉사가 시각을 나누는 행복한 일이라는 점을 알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과 더 다양한 시각을 나누겠다는 다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이번 여름방학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이화 벼들을 만나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나갔던 이화봉사단의 활동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눈다는 것의 성취감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4박 5일 중 첫 날은 어색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하는 활동들이 처음이라 모든 것이 어렵게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같이 갔던 이화봉사단원들의 격려와 따뜻한 조언 덕분에 4박 5일을 더욱 값지게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제가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봉사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제가 아이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얻었음을 느끼면서 비로소 봉사라는 것이 혼자가 아닌 함께 했을 때의 행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화국내교육봉사단의 활동을 통해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봉사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고 함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취감, 보람을 가득 느끼고 와서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이기에 쏟았던 애정과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고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 내면에 있던 제 본심이 툭툭 나오기도 했던 것이 서툴렀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두드러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 어울림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했던 제게 이화국내교육봉사단은 또 다른 봉사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기분 좋은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